

7/30/17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히브리서 13:7-15

(히 13: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9)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 13: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절관주** 레 4:11, 레 4:12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 13:13)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 13:14)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 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시고 모세보다도 그리고 아론을 비롯한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성막, 대제사장,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한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드린 속죄제 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속죄 제사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으며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된 것입니다.

본래 죄인인지라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케 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혹여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12 장까지 대략입니다.

그리고 13 장 마지막 장에서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히 13: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대부분이 순교했는데 그러한 순교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도들과 제자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영광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단지 사랑할 존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신데 바로 하나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히 13:9)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음식에 관한 율법의 규례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교회 내에서 율법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히 13: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제사에는 화목제 속건제 소제 번제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 속건제 소제에서는 제사 드리고 남은 희생 제물의 고기나 곡물을 제사장들이나 제사 드린 백성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에서도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속죄제의 경우도 평민들이나 족장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는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에서는 번제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대제사장에게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속죄일 드리는 속죄제에서는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는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뿌리고 몸은 번제단에서 다 불태워서 드리고 남은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 가져다가 불살라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속죄일날 염소 가죽과 고기를 영문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두 경우 모두 그 육체가 영문 밖에서 수난 당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밖'이라는 말은 '진영 밖, 진지 밖'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생활했는데 그곳을 "진영" 또는 "진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영 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은혜와 사랑, 교제와 축복이 있는 곳이지만 진영 밖은 버림 받음과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진영 안에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지만 진영 바깥에는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있을 뿐입니다.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인 염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드리고 남은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밖에 가져다가 불사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속죄제의 희생 제물인 염소는 일년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을 몽땅 다 뒤집어 씌운 최후의 희생 제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희생 제사는 바로 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로 매듭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모든 희생 제사를 종결짓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대속죄제인 것입니다.

대속죄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장 근접하게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대속죄제의 희생 제물인 이 염소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안수를 받는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년 동안 지은 모든 죄와 부정을 몽땅 다 전가받아 부정과 죄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덩어리가 되어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이 된 이 염소는 철저히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대속죄일날 희생 제물이 된 염소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죄와 부정의 덩어리가 되어 영문 밖 곧 예루살렘 성문 바깥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점의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죄와 부정의 덩어리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영문 밖에서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당했어야 할 저주와 심판과 수치와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문 밖에서 수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속죄되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수신자인 유대인 크리스찬과 우리들을 향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살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히 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 13:13)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동족의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의 진영 안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그들을 향해 “이 세상에서의 목숨 부지하겠다고 유대교의 진영 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동족과 타협해서 유대교 진영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당장에는 안전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입니다.

반면에 동족들로부터 배척과 박해를 받으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은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산다면 치욕은 없을 것입니다.

영문 안에서의 삶은 고난이 없고 편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길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길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온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정욕을 죽이고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삶은 많은 손해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다른 선한 삶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자기들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하며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기자는 그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주님을 향해서'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영문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영문 안에 있으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그 길은 당장에는 편하고 쉽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오면 거기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그 길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우리를 종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 13:14)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이 세상도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에서 내려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감내해 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영문 밖에서 수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영문에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